

## 가족(성인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의 종류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원) 가족관계 양상 분석 및 개입전략의 제시\*

엄명용\*\*

성인자녀들이 청소년 시절 그들의 성인부모와 형성했던 원가족관계 양상이 현재 성인들에 의한 노부모 부양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생존해 있는 노부 또는 노모가 있는 35세 이상 성인자녀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공변량구조분석(일명 LISREL) 방법을 사용해 분석되었다.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원가족관계 양상'은 '노부모부양정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염려'라는 매개 변인에 일단 영향을 준 뒤, 이 영향이 다시 '노부모 부양정도'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간접 영향을 주었다. 원가족관계는 '노부모 부양의식'에도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역시 '부모에 대한 염려'를 통해 간접 영향을 주었다. 노부모 부양의식은 바로 노부모 부양행위로 이어지지 않아,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당위적 생각과 실제 행위는 별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노부모에 대한 염려의 정도가 매개변인 역할을 하므로 이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황에서 원가족관계 개별측정변인들이 노부모 부양의 종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 정서적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부모에 대한 존중감의 표현

\* 이 연구는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KRF-2000-041-C00484).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과 노부모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만 일부 예언변인들이 변별력을 보일 뿐 다른 부양변인에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파악된 현상에 근거하여 노인부양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원가족관계 형성 전략이 간략히 제시되었다.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부양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 부양체계의 형성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사적 부양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사회의 경우 노인부양 문제는 대부분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된다(장인협·최성재, 1994).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선 가족 후 국가'적 노인부양 입장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홍순혜, 1999). 우리사회에서 가족은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 집단으로서 정서지원, 가사지원, 경제지원, 교류·동반 등을 노인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급증할 노인의 부양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족기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부양과 관련된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 양상에 대한 역동적인 연구는 물론, 노인부양에 적절한 가족관계 형성 전략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현재 노인부양의 책임을 떠맡은 성인자녀세대 가족이 청소년기에 부모와 함께 형성했던 가족(이후, 이를 원가족이라 칭함)의 가족관계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가족의 과거 가족관계 양상이 현재 성인자녀세대 가족의 노부모 부양태도, 노인에게 제공되는 부양의 종류 및 질(*quality*)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차 노인 세대가 될 현재의 장년세대들에게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성인자녀세대 가족이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정서지원, 가사지원, 경제지원, 교류·접촉, 문제해결 등의 내용 및 질과, 과거에 노인세대가 그들의 자녀세대와 형성했던 가족관계 양상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인과구조모형 설정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미래 노인 부양문제를 예방,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적 측면에서 현재의 부모들이 자녀세대와 어떤 가족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종래의 연구와 견주어 갖는 차별성은 이전의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

현재의 노부모 부양정도와 노부모 부양태도 양상에 보다 근원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원가족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전의 연구들이 다루었던 내용들은 대개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이 제공하는 지지의 양상을 평면적으로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고, 가족이 제공하는 노인부양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일부 연구에서 다루어진 요인들도 대개, 1) 노인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의 특성(예: 관계망의 크기, 관계망과의 접촉빈도, 동거가족 수, 가구수입, 소유재산 등), 2) 부양정도에 영향을 주는 노인의 특성(예: 성별, 나이,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일상생활능력 등), 3) 부양자의 특성(예: 연령, 성별, 교육수준, 전업주부여부, 맘며느리 여부 등)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상에 대한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 예방하는 데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변인들이 인구학적 변인들이어서 그 변인들과 노인부양 양상 사이에 상관관계를 밝혀낸다 하더라도 인구학적 변인의 변화나 조작이 쉽지 않음으로 인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 가족 개입에 대한 함의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청소년기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사전 개입을 통해 노인부양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 2. 선행연구 검토

### 1) 국내외 연구 동향

노인인구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Eggebeen(1992)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가장 흥미 있는 연구분야가 부양(*assistance*)의 세대간 교류, 즉 부모세대의 자녀세대에 대한 보호와 성인자녀세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결혼 기피 및 결혼지연으로 인한 부양자 가족 증가의 둔화, 결혼가족의 소자녀화 내지는 무자녀화 추세의 증가, 별거 및 이혼의 증가에 의한 부양자 가족의 붕괴 현상, 여성의 산업 진출로 인한 부양 인력의 감소 등을 들고 있다. Whitbeck · Simons · Conger(1991)도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75세가

---

됨에 따라 자녀와 50년이라는 세월의 겹침 현상이 일어나고 손자녀와도 20년 정도의 세월이 겹쳐 세대간 부양의 교류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경희 외(1998)도 현재 우리사회의 핵가족화 추세와 소자녀 규범화 등의 문제를 들어 노인부양 기능 축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노인 부양에 있어 혈연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에 의지하는 정도가 미국에 비해 훨씬 큰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부양을 둘러싼 세대간 원조자원의 교환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절박하다. 황미영(1999)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비공식적 지지망의 기능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에서, 우리나라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원조를 제공할 혈연이 부재할 때, 비혈연이나 지역사회로 원조자의 대체가 일어나지 않고 아예 원조의 부재상황으로 귀결되어,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서 혈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강력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금전적 도움의 경우는 성인자녀 외에 친척으로의 원조자 대체도 원활하지 못함을 밝혀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에 대한 강한 선호와 의존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국내외의 연구들은 지금까지 노인의 부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부양자의 특성과 피부양자의 특성, 그리고 피부양자를 둘러싼 비공식적 관계망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자의 특성들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양자의 연령(한남제, 1989; Hagestad, 1987; Lang & Brody, 1983), 교육수준(서병숙·이신숙, 1990; Hendricks & Hendricks, 1981), 도시주부 여부(한경혜, 1992), 만며느리 여부(임종권 외, 1985; 이가옥 외, 1990), 전업주부 여부(김상옥, 1999), 부양자의 가구원수(Antonucci et al., 1996; 서병숙·이신숙, 1990; 이가옥 외, 1994), 가구수입(서병숙·이신숙, 1990), 부양자 소유 재산(김상옥, 1999) 등이었다. 노인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피부양자 측면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로는 피부양자의 건강상태(Whitlatch & Noelker, 1996; Kane & Kane, 1987; 이가옥 외, 1994), 시부모 소유재산(이가옥 외, 1994), 피부양자의 연령(Kinney, 1996; Cox, 1993; 이가옥 외, 1994) 등이었다. 홍순혜(1999)는 노인들이 받는 지지의 종류를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후, 피부양 노인에게 대해 배우자는 정서적 지지, 아들은 금전적 지지, 며느리는 도구적 지지, 딸은 정서적·금전적 지지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김상옥(1999)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모든 부양자 관련 변인과 피부양자 관련 변

---

인이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구조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해 본 바 있다. 노인부양 현상 규명에 대한 이들 연구들의 학술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 문제를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천적 의미에서의 효용성 한계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와는 달리 몇몇 국외 연구들은 성인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그들의 부모와 함께 형성했던 가족관계 양상을 현재 성인자녀·노부모 관계, 그리고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연결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들 연구들이 전제했던 것은 어린 시절의 가족관계 양상이나 가족관계 역사는 나중에 성인자녀와 노부모가 형성하게 될 가족관계 형태 및 가족결속에 큰 영향을 주며(Rossi & Rossi, 1990; Patterson, 1986), 이것은 다시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었다(Whitbeck et al., 1991, 1994). 이러한 전제하에서 Whitbeck, Simons, & Conger(1991)는 부모의 적대감, 우울, 약물남용, 거부적 태도, 엄격한 양육방식 등이 현재의 성인자녀·부모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다시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부모에 대한 지원은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집안일, 식사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한 지원의 정도를 1에서 5사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로 답하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의 성인자녀·부모 간 관계도 하나의 문항으로 1에서 5까지의 숫자로 '매우 좋다'에서 '매우 나쁘다'로 답하는 것이어서 종속변인의 측정이 부실하였다.

Whitbeck, Hoyt, & Huck(1994)은 후에 종속변인인 부모에 대한 지원에 집안일, 식사제공, 교통편의 제공 외에 정서적 지지와 간병을 포함시키고 독립변인들에는 가족관계 양상을 나타내는 부모의 거부적 태도, 노부모의 건강, 성인자녀-노부모의 거주지역 격차, 부모의 독거 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구조모형을 제시한 후 검증한 바 있다. 이들 두 가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였던 거부적 태도는 후에 성인자녀·부모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고 이 영향은 다시 부모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관련 연구에서 성인자녀의 청소년시절 자녀·부모간 가족관계 양상에 관심을 보인 유일한 연구는 김효정·김명자(1995)의 연구이다. 이들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현재의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가 노인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가

---

노인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인인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는 애정적 관계, 갈등적 관계, 권위적 관계, 자율적 관계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이들 중 애정적 관계는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와 노인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갈등적 관계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중 갈등적 관계로 나타나 가족생활 주기에서 초기 관계가 후기 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초기 부모의 거부행위나 편애가 후기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Whitbeck et al. (1991, 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김효정·김명자(1995)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는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누적, 변화되면서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을 논할 때는 가정생활 주기에서 청소년기 이전의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결혼 이후 노부모·성인자녀관계 및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비록 종속변인을 노부모 부양에 두지는 않았지만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가 현재의 성인자녀·노부모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낸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요약하면, 국내에서 노부모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 자녀-부모 관계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기 자녀·부모 관계 양상이 성인자녀·노부모 사이의 관계 양상에 영향을 주며 이 영향은 누적적, 지속적임을 밝힌 연구는 있었다. 국외의 연구들은 일찍이 초기 가족관계 양상이 노부모·성인자녀 관계 양상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노부모 부양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하지만, 외국의 연구들은 그들의 부양 문화를 반영하여 노부모가 성인자녀로부터 받는 부양의 종류와 정도를 단순하게 측정할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초기 관계양상도 단일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됨으로서 측정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원가족관계 양상 및 부모부양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측정오류가 내포된 직접 측정을 택하는 대신, 공변량구조모형의 측정모형<sup>1)</sup>에 의한 내재변인(*latent construct*) 추출방식을 택해 정확한 개념을 도

---

1) 자세한 설명은 제3장 '연구방법'의 제2절 '측정도구' 부분의 註, 3)을 참조할 것.

---

출한 후, 공변량구조모형의 구조등식모형에 의해 내재구인들간의 관계를 예측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 2) 원가족관계 양상, 부모에 대한 염려, 노부모 부양정도 사이의 관계

Whitbeck, Simons, & Conger(1991)의 연구와 Whitbeck, Hoyt, Huck(1994)의 연구에서 행해진 공변량구조분석 결과, 원가족관계 양상의 일부인 부모의 거부적 태도(*parental rejection*)는 부모에 대해 성인자녀가 느끼는 염려(*filial concern*)와 성인자녀·부모 간의 감정적 유대와는 부적 관계, 현재의 갈등관계와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부모부양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즉, 부모의 거부적 태도로 대표된 가족관계양상은 현재의 성인자녀·노부모 관계양상(갈등관계, 감정적 유대, 부모에 대한 염려 등)에 직접 영향을 주었지만, 부모 부양정도(집안일, 교통편의 제공, 식사준비, 정서적 지지 등)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반면, 두 연구 모두에서 성인자녀가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염려는 부모에 대한 도구적, 정서적 부양정도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원가족관계는 노부모 부양정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수행된 이 연구에서 원가족관계는 부모의 거부적 태도 하나에 의해 측정되어 원가족관계 양상 전반의 영향을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에 경제적 지원이 빠져있어 노부모에 대한 지원 중 경제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상황에 이 연구결과를 직접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지원의 정도도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측정변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기 공변량구조 모형에서는 원가족관계 양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부모부양 변수에 경제적 지원을 추가한 후, 위의 두 연구(Whitbeck et al., 1991, 1994) 수행 시 원가족관계가 부모부양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했던 것과 같이 일단, 원가족관계가 부모부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변수간 관계를 설정하였다.

과거의 원가족관계 양상이 성인자녀·노부모 사이의 현재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Cicirelli(1983)는 성인자녀가 현재 부모에 대해 갖고 있는 애착은 원가족의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서 기인된다고 하였으며, Capsi

---

& Elder(1988)는 문제행동 및 문제관계는 세대를 통해 전이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 상황에서 학습된 관계유형은 유사구조의 다른 상황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Rossi & Rossi(1990)도 어린 시절 가족관계 양상은 나중에 성인자녀와 노부모가 형성하게 될 가족관계 형태 및 가족결속도에 큰 영향을 줌을 밝혔다. Patterson(1986)은 초·중학생 대상의 실증연구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고향을 치거나 심하게 비난하는 태도 등은 그들의 자녀에게 그대로 학습되었다가 후에 다시 부모에게 작용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김효정·김명자(1995)가 서울시와 하남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2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기 부모·자녀 간의 애정적 관계는 후에 노부모와 성인자녀간 결속도(정서, 접촉, 기능, 구조, 규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부모·자녀 간의 갈등적 관계는 결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원가족관계 양상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성장한 성인자녀는 후에 자신의 노부모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가정할 수 있다.

### 3) 부모염려와 부모부양의식 사이의 관계

본 연구에서 부모염려란 부모 곁에 늘 있으며 부모를 돌보고 싶은 마음, 부모에 대한 부모관심, 걱정 및 연민이다. 이는 일종의 애착행동 또는 애착감이라 볼 수 있다. Cicirelli(1983)는 60세 이상의 노모와 살고 있는 148명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행동과 애착감이 부양 책임감에 강한 영향을 끼침을 밝혔다. 국내에서 성인자녀가 부모를 염려하는 것이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부양의식이 부모에 대한 염려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염려'가 부모를 부양하고 싶은 마음(부양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 4) 원가족관계 양상, 노부모 부양의식, 노부모 부양정도 사이의 관계

Simons(1973)는 50명의 성인자녀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아동기에 부모와의 기억이 현재 부모의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부양의식은 원가족관계 양상에



---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성규탁(1993)은 서울의 55세 이상 재가노인 392 가구의 노인과 성인자녀(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부양자의 부양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 부양자와 노부모 관계의 친밀도와 가족 화합의 정도가 강할수록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즉 부양의식(효행 의지)이 높아지며 이것은 노부모 부양정도에도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서병숙·이신숙(1990)도 399명의 농촌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행한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정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노부모부양 정도와 노부모부양의식 사이에는 비교적 높은 정적 관계( $0.33 \leq r \leq 0.74$ ,  $p < 0.01$ )가 있음을 밝혀 부모부양정도는 부모부양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서병숙·이신숙(1990)은 높은 부양의식은 정서적 부양행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적 부양행위에는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부양의식이 곧 바로 부양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김상욱·양철호(1998)와 김상욱(2000)의 연구에서 부양의식이 곧 부양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구성체는 서로 상이한 선행요인을 지니는 별개의 구성체임이 드러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이점은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는 의식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밝힌 임종권 외(1985)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최정혜(199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부양의식이 더 높고, 노년층일수록 정서적 부양에 더 가치를 두며, 청년층일수록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나 부양의식과 실제 부양행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 추론하여 원가족관계 양상이 노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되었고,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행위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연구결과들이 상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부양의식이 부양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부양행위별로 부양의식에 영향을 받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 구성체로 측정된 부양행위가 부양의식 간에 의해 영향받을 것이라 가정하고 검정하고자 하였다.

##### 5) 통제변인들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부양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부양행위는 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부양자의 특성으

---

로는 성별(Lang & Brody, 1983; 홍순혜, 1999) 이, 그리고 피부양자의 특성으로는 노부모의 건강, 성인자녀-노부모의 지리적 근접성(이상 Whitbeck et al., 1991, 1994), 홀로 사는지의 여부(김상욱, 1999) 등이 부양행위 및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부모의 나이도 부양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가족관계 양상이 부양의 종류 및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상의 변인들이 적절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

### 3. 구조등식모형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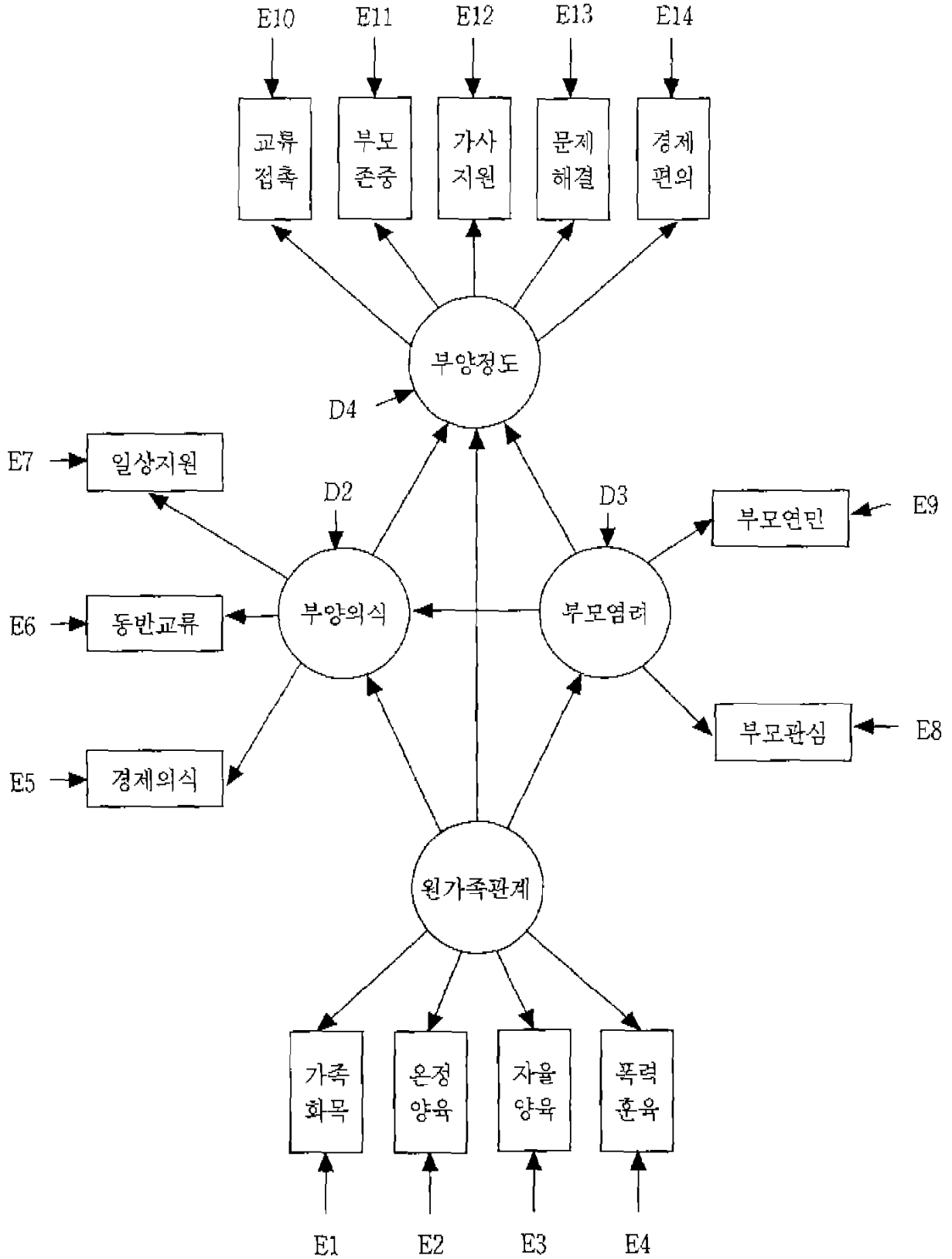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변량구조모형(*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은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구조등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이 결합되어 있는 모형이다. 측정모형은 직접 측정될 수 없다고 간주되는 내재변인을 여러 개의 측정도구들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것에 관계되고, 구조등식모형은 이렇게 추출된 내재변인들간의 인과관계 설정 및 검증에 관계된다. 측정모형에 대한 설명은 제4장 '연구방법'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구조등식모형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구조등식모형은 내재변인들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공변량구조모형 분석법을 이용한 구조등식모형의 검증 과정은 이렇게 미리 설정된 일련의 가설들의 타당성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검증하는 확인연구(*confirmatory study*)이다. 내재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 가설은 기존 이론, 경험적 연구결과, 연구자의 과학적 직감(Schumm, Southerly, & Figley, 1980) 등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원가족관계가 노부모 부양에 미치는 양상을 직·간접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도출의 근거로 경험적 선행연구결과와 연구자의 과학적 직감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1> 2)은 노인부양행위와 관련된 각 내재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 가설을 종합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독립변인(외생 내재변인)은 원가족관계 양상이고, 궁극적인 종속변인(내생 내재변인)은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현재 제공하는 부양의 정도이다. <그림 1>

---

2) 여기서는 일단 내재변인(타원 내에 위치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만 주목할 것.

〈그림 1〉 제안된 인과구조 모형



---

에 나타난 인과관계 가설을 살펴보면, '원가족가족관계'가 '부모부양'에 직접영향을 주는 동시에, '부양의식'과 '부모염려'를 거쳐 간접영향도 주고 있다. 또한, '부모염려'는 '부양정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동시에 '부양의지'를 거쳐 간접 영향도 주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식'과 '부모염려'는 '원가족관계'와 '부모부양'사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 4.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35세 이상의 결혼한 성인자녀(남, 여)로서 부양할 부 또는 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애초에는 자료쌍(*paired data*)을 구하기 위해 연구보조원들이 표준화된 설문도구를 갖고 노인들을 직접 만나 원가족관계 양상과 피부양 상황을 조사한 후 조사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와 전화를 통한 조사를 병행하려 하였다. 하지만, 노인들이 작성할 가족관계관련 문항 및 피부양상황 관련 조사항목이 너무 많아(총 102문항) 신뢰성 없는 응답이 우려되었고, 노인이 지목하는 부양자가 누구인가(부양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부양자, 혹은 부양을 잘 못하고 있는 부양자, 아들, 딸, 며느리 등)에 따라 원가족관계 양상과 부양행위의 형태에 체계적 오류가 나타날 것이 우려되어 애초 계획이 변경되었다. 성인자녀의 접촉은 목적 표집방법을 통해 이뤄졌다. 즉, 가급적 다양한 소득 및 사회계층의 성인자녀들이 골고루 표집될 수 있도록 직업군을 분류한 다음, 해당 직업군에 속한 성인자녀들을 임의 접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대상자와의 임의 접촉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접촉이 이루어진 연구대상자들에 연구의 성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나중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응답자에 대해서는 5,000원 상당의 사례금품이 제공되었다.

---

## 2) 측정도구

〈그림 1〉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변인들이 나타나 있다.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변인은 내재변인(*latent construct*)이며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변인들은 내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인들(*measurements, indicators*)이다. 이론변인이라고도 불리는 내재변인 값은 보통 직접 측정될 수 없다고 간주되어 내재변인의 영향을 받는 측정변인들의 값을 통해 추출된다(Bollen, 1989; Joreskog & Sorbom, 1989). 이 때 내재변인은 측정변인들의 공통요인(*common factor*)이 되며 측정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sup>3)</sup> 〈그림 1〉에서 총 4개의 내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총 14개의 측정변인들이 사용되었다.

### (1) 원가족관계

원가족관계는 현재의 성인자녀들이 어린 시절(개략적으로 유아기부터 사춘기까지의 시절) 자신의 부모와 형성했던 가족관계 양상에 관한 회상 내용이다. 이 내재변인 측정을 위해 ‘가족화목도’, ‘온정양육’, ‘자율양육’, ‘폭력훈육’ 등의 4가지 측정변인들이 사용되었다.

① 가족화목도: 가족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화목했는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김준호·김순형(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화목도 측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0.86이었다. 높은 점수는 가족화목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② 온정양육: 부모가 자녀를 온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긍정적인 확신을 준 정도를 나타낸다. Buri(1989)가 개발한 부모애정척도(*Parental Nurture Scale*,

---

3)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에서 이러한 방법은 측정모형이라 불리는데 확인적 요인분석과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내재변인은 그를 측정하는 측정변인에 의해 측정오차 없이 100% 대표된다고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정변인들이 갖고 있는 측정오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공통설명 요인에 의해 대표된다. 예로서, 내재변인, 원가족관계는 가족화목, 온정양육, 자율양육, 폭력훈육 등의 네 가지 측정변인들이 갖고 있는 측정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공통요인에 의해 대표된다. 따라서, 원가족관계는 한 가지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개념보다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구성체(*construct*)가 될 수 있다.

---

PN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0.96이었다. 값이 클수록 온정양육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③ 자율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양육한 정도를 나타낸다. Parker(1979)가 개발한 부모유대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0.85이었다. 값이 클수록 자율적인 양육을, 작을수록 비자율적(과잉보호적) 양육을 나타낸다.

④ 폭력훈육: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어떤 식으로 자녀를 훈육하였는가를 나타낸다. Barnes & Farrell(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리커트척도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적 훈육(언어적 무시, 고함 사용 등)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낮을수록 차분하고 이성적인 설득에 의한 훈육을 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료를 통해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0.92이었다.

## (2) 부양의식

노부모 부양의식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자녀의 의식정도를 나타내는 내재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의식 내재변인을 추출해 내기 위해 '경제(부양)의식', '동반교류(의식)', '일상지원(의식)' 등 3개의 측정변인들이 사용되었다. 이들 측정변인들은 심은지(1998)의 연구에서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서비스 부양의식 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총 24문항 중 본 연구에 맞게 총 19문항을 간추려 재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경제의식 0.83, 동반교류 0.80, 일상지원 0.83이었다.

## (3) 부모염려

부모염려는 부모에 대한 안전과 행복에 대한 걱정 정도, 부모를 곁에 두고 싶은 심정, 부모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느끼는 연민의 정도 등을 나타내 주는 내재변인이다. 이 내재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부모관심'과 '부모연민' 등 두 개의 측정변인들이 사용되었다. '부모관심'은 부모를 생각·걱정하며 부모에 관심을 두는 정도이며, '부모연민'은 부모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생각하는 정도이다. 이 측정변인들은 Whitbeck et al. (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애착(*filial concern*)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우리 상황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각각 5문항과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부모관심이 0.83, 부모연민이 0.84이었다.

#### (4) 부양정도

내재변인 노부모 부양정도를 추출하기 위해 '교류접촉', '부모존중', '가사지원', '문제해결', '경제편의' 등 5개의 측정변인들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측정변인들은 최혜경 외(1999)의 연구에서 도출된 부양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 중 본 연구에 맞게 30문항을 선택, 수정하여 구성되었다. 교류접촉(부모를 수시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냄) 3문항, 부모존중(부모에 대한 존중과 친밀감을 전달) 9문항, 가사지원(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잡일 처리) 9문항, 문제해결(문제상담 및 해결) 5문항, 경제편의(생활비, 의료비 등의 제공) 4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교류접촉 0.80, 부모존중 0.91, 가사지원 0.91, 문제해결 0.86, 경제편의 0.80이었다.

### 3) 자료분석 방법

#### (1) 구조등식모형 검증

〈그림 1〉에 제시된 인과모형에 대한 검증은 EQS for Windows 5.7(Bentler, 1998)의 공변량구조모형 분석기법<sup>4)</sup>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공변량구조모형기법에는 측정변인들과 내재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인 확인적 요인분석 국면(측정모형)과 내재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증 과정(구조모형)이 결합되어 있다. 구조등식모형의 함수추정을 위해서는 최대근사화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에 의하면 모형 함수들은 모형이 내포하고 있는 변량/공변량 행렬이 실증적 자료가 나타내는 변량/공변량 행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도록 추정된다.

EQS는 경로모형의 추정뿐만 아니라 부양정도에 대한 외생변인 및 내생변인의 전체 영향을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으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연구에서

---

4) 이 기법은 흔히 LISREL 기법이라고 불리는데, LISREL은 SPSS사에서 제공하는 공변량구조분석 프로그램의 명칭이며 Multivariate Software사에서 제공하는 공변량구조분석 프로그램의 명칭은 EQS이다. LISREL과 EQS는 사용의 편의성과 각종 지표(모형적합성지표, 수정지표 등)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전반적인 분석기법 및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명칭인 공변량구조분석 기법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

제시된 이론적 모형이 실증적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제시된다. 연구모형과 실증적 자료의 일치도가 낮은 경우는 일치도를 증가시키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수정지표와 함께, 일치도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경로를 제거할 수 있는 수정지표도 제공된다.

## (2) 통제변인의 확인

성인자녀에 의한 노부모 부양행위는 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에 앞서 부양자의 성별, 노부모의 건강 상태(생활지장 여부 및 질환유무), 노부모의 소득수준,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지리적 거리, 노부모의 나이 등의 변인들이 통제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일원분산분석결과 부양자의 성별은 교류접촉( $p=.412$ ), 부모존중( $p=.266$ ), 가사지원( $p=.805$ ), 문제해결( $p=.084$ ), 경제편의( $p=.366$ ) 등의 최종 종속변인에는 물론 경제의식( $p=.763$ ), 동반교류( $p=.293$ ), 일상지원( $p=.345$ ) 등의 부양의식관련 변인과 부모관심( $p=.864$ ), 부모연민( $p=.104$ ) 등 염려 관련 변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지리적 거리, 부모의 질환 유무, 부모의 건강상태, 부모 나이<sup>5)</sup> 등의 변인들도 한결같이 최종 종속변인의 변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다만, 노부모의 소득수준은 성인자녀에 의한 경제편의제공 행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켰다( $p=.018$ ). 즉, 고소득의 부모들은 성인자녀들로부터 경제적 편의 제공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은 성인자녀에 의한 교류접촉 정도, 존중감 표현 정도, 가사지원 정도, 문제해결지원 정도 등의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특성들은 종속변인인 노인부양정도 전반에 상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구조모형의 검증과정에서 이들 변인들은 통제되지 않았다. 독거 남성노인과 독거 여성노인의 경우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정도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측되나 우리 사회의 경우 이와 관련한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김상욱, 1999) 이에 대한 통제도 생략되었다.

---

5) 부모나이를 독립변인으로 부모부양관련 5개의 측정변인들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모든 회귀계수들의 유의확률은 0.071(아버지의 나이 → 문제해결정도) 보다 크게 나타났다.



### (3) 원가족관계 유형에 따른 부모부양 종류의 차이

원가족관계의 유형에 따라 부모부양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가족관계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부양의 종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며, 원가족관계와 부모부양정도 사이의 매개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일반선형모형(GLM) 방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적 유의성 판단의 기준은  $\alpha = 0.05$ 이다.

## 5. 분석결과

### 1) 응답자 특성

총 306명의 성인자녀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중 6부는 연령이 30세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성격상 부모부양행위 능력이 아직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모든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총 300부의 설문지 중 2부는 응답이 불성실하여(예: 동일한 번호에 계속해서 표시)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기술통계분석에는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216명(72%), 여성이 84명(28%)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5.86세(최소 35세, 최대 63세)였다. 이들 성인자녀들의 부의 나이 평균은 73.17세, 모의 나이는 71.57세였다. 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159사례, 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264사례, 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는 130사례였다. 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자녀의 수는 38명(전체(n=300)의 12.7%), 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77명(25.7%)이었고, 양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30명(10%)이었다. 부 또는 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차로 1시간 미만의 거리에 살고 있는 경우가 28.2%(n=215)로 가장 많았고, 차로 3시간 이상(16.4%),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3.4%), 도보 30분 미만(7.0%), 차로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7.0%)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84.9%)은 남·녀 형제 모두를 갖고 있었으며 형제서열은 응답자(n=299명)의 28.8%가 첫째였으며, 둘째 23.7%, 셋째 19.1%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고(n=298, 45%), 고졸(36.9%), 대학원졸(12.4%), 중졸(4.0%), 초등졸(1.7%)의 순서로 나타나 응답성인자녀의 전반적인 학력이 비교적 높

---

았다.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응답자(n=297)의 32.0%가 사무직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직(16.8%), 판매직(14.8%), 무직 또는 가정주부(14.1%), 숙련직(9.4%), 전문직(5.4%), 반숙련직(4.4%), 단순노동(3.0%)의 순이었다. 경제활동의 결과 얻고 있는 성인자녀가족의 소득분포는 200에서 250만원 사이가 19.3% (n=295)로서 가장 많았으며, 250~299만원(16.6%), 300~399만원(14.6%), 150~199만원(12.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가 대략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성인자녀 부모의 소득으로는 응답자(n=276)의 20.7%가 10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50~99만원(18.8%), 100~149만원(11.6%), 20~29만원(10.5%), 10~19만원(9.8%), 40~49만원(9.1%)의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 2)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을 위한 예비 분석

지나치게 큰 첨도(尖度, kurtosis, 5.8133)나 왜도(歪度, skewness, 2.1355)를 지녀 다중정규분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폭력훈육 변인은 자연로그 처리하여 첨도가 조절되었다. 변인들이 적절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와 공선성(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14개 측정변인들간의 피어슨 상관행렬<sup>6)</sup>을 점검해 본 결과 폭력훈육만 다른 변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 상관의 방향이 적절했으며, 가장 큰 계수가 0.735('부모관심'과 '부모연민')이었고 다음이 0.689('동반교류'와 '일상지원')이어서 공선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Hayduk, 1987).<sup>7)</sup> 일반적으로 동일한 내재변인을 측정하는 변인들끼리의 상관계수는 다른 내재변인을 측정하는 변인들과의 상관계수들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도구들의 전반적 타당성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부모부양행위를 측정하는 '부모존중' 변인은 원가족관계를 측정하는 변인 '가족화목' 및 '온정양육'과 각각 0.445, 0.404의 상관을 보여 원가족관계 내재변인 측정변인들인 '가족화목'과 '자율양육' 사이의 상관( $r=0.385$ )보다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부모존중' 변인은 염려를 측정하는 '부모관심' 및 '부모연민'과도 각각 0.584, 0.625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나 '부모관심'과 '부모연민' 사이의 상관( $r=0.735$ )보다는 낮은 상

---

6) 지면관계상 상관행렬의 제시는 생략하였음. 필요한 경우 본 연구자에게 요청바람.

7) Hayduk은 상관계수가 .90 이상일 때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관을 보였다. 14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는 지면상 생략하였다.

### 3) 모형 검증 결과

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된 사례는 총 254사례였다. 이는 일괄적으로 결측값을 제외함(listwise 제외방식)에 의해 총 14개의 변인 모두에 결측값을 갖고 있지 않은 사례만이 공변량구조분석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 (1) 초기모형의 적합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해 가정된 함수의 변량·공변량이 실증자료를 통해 얻은 통계치의 변량·공변량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적합도 판별계수들이다. 먼저, 잔차공변량행렬(Residual Covariance Matrices)<sup>8)</sup>의 점검결과, 초기모형에서 잔차공변량행렬 대각선 밖 값의 절대표준평균치는 0.0480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적절함을 보여주었다. 표준잔차 값들이 0.20보다 작으면 적합모형이라고 판단되는데(Joreskog & Sorbom, 1989), 본 연구에서 0.20보다 큰 유일한 수치는 0.224('가족화목'과 '부모존중'사이의 공변량)였다. 이는 '부모존중'과 '가족화목' 사이의 부적합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큰 표준잔차 값들은 '부모존중'/'부모연민'(0.194), '문제해결'/'가족화목'(0.145); '경제편의'/'부모존중'(-0.135); '부모존중'/'온정양육'(0.131) 등으로 나타나 '부모존중' 변인이 모형 속에서 잘못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표준잔차 값들의 빈도분포는 대칭적이면서 영(zero) 근처에 분포되어야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Byrne, 1994), 본 분석의 결과 대부분의(91.43%) 표준화된 잔차값이 -0.1에서 0.1사이에 분포하였고, -0.1에서 -0.2사이의 빈도가 1(0.95%), 0.2에서 0.1사이의 빈도가 7(6.67%), 0.3에서 0.2사이의 빈도가 1(0.95%)로 나타나 표준화된 잔차값들이 주로 0주변에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잔차 분석을 통해 살펴볼 때 설정된 구조등식모형은 실증자료 통계치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

8) 잔차공변량행렬은 실증자료의 공변량 행렬(sample covariance matrix(S))과 추정된 공변량행렬(hypothesized covariance matrix( $\Sigma$ ))과의 차이(S- $\Sigma$ )를 나타냄.

초기모형 검증결과,  $\chi^2$ 값은<sup>9)</sup> 173.497 ( $p < 0.001$ ) 이어서 모형 적합도가 좋지 않음 (*poor fit*) 을 나타냈다(〈표 2〉 참조). 또한, S-B  $\chi^2$ 값도<sup>10)</sup> 154.9930 ( $p = .0000$ ) 이어서 모형은 아직도 좋지 않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표본크기에 따른  $\chi^2$  값의 민감성 문제(Bentler & Bonett, 1980)를 보완하기 위해,  $\chi^2$ 값을 모형의 자유도(df)로 나눈 값이 모형적합도 판단의 기준<sup>11)</sup>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 초기모형에서  $\chi^2 \div df = 173.497 \div 71 = 2.4436$ 으로 나타나 이 기준에 근거에 볼 때는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EQS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부합지표 중, Comparative Fit Index(CFI)<sup>12)</sup>가 일반적으로 가장 적합한 판단기준이라고 알려져 있다(Bentler, 1990b; Byrne, 1994: 55). 초기 모형의 CFI 값은 0.942로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CFI를 구함에 있어  $\chi^2$ 값

〈표 1〉 모형 수정 전, 후의 적합도 비교

| 모형   | $\chi^2$<br>(p-값) | S-B $\chi^2$<br>(p-값) | df | CFI   | *CFI  | GFI   | AGFI  | RMR   | 회전수 |
|------|-------------------|-----------------------|----|-------|-------|-------|-------|-------|-----|
| 초기모형 | 173.497<br>(.000) | 154.9930<br>(.00000)  | 71 | 0.942 | 0.939 | 0.913 | 0.871 | 1.431 | 15  |
| 수정모형 | 128.991<br>(.000) | 117.0253<br>(.00048)  | 71 | 0.967 | 0.967 | 0.935 | 0.904 | 1.172 | 13  |

\* CFI = 다중정규분포 조건 불충족을 고려해 교정한 CFI값.

- 9)  $\chi^2$ 값이 가급적 작게 나타나고, 확률치는 크게 나타나야( $p > 0.05$ ) 좋은 모형이다.
- 10) 다중정규분포 가정의 불충족으로 인한 문제를 교정하고자 표본분포의 첨도치(*kurtosis values*)를 고려하여  $\chi^2$ 값을 교정한 것이 S-B  $\chi^2$ (Satorra & Bentler, 1988)이다.
- 11) 이 값이 3보다 작거나(Carmines & McIver, 1981), 5보다 작으면(Wheaton, Muthen, Alwin, & Summers, 1977),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 12) 이것은 표본크기를 고려한 부합지표(Bentler, 1990a)로서 모형에 내포된 모든 변인들 사이의 공변량이 0이라고 전제할 때의  $\chi^2$ 값(null model 값)과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등식모형이 규정하고 공변량 하의  $\chi^2$ 값(연구모형 값)을 자유도를 고려하여 비교·산출한 값이다. 즉,  $CFI = \frac{(\chi^2 - df) - (\chi^2_k - df_k)}{(\chi^2_0 - df_0)}$  ( $\chi^2_0$ : null model 값,  $\chi^2_k$ : 연구모형 값에서의 값,  $df_0$ : null model의 자유도;  $df_k$ : 연구모형의 자유도). 이 값은 0부터 1까지 존재하며, 0.90보다 큰 수는 실증자료에 적합한 구조등식모형임을 나타낸다(Bentler, 1992).

---

대신에 S-B  $\chi^2$ 값을 대체하여 산출한 값이 교정CFI(\*CFI)<sup>13)</sup>인데, 초기 모형에서 S-B  $\chi^2$ 값은 0.939였다. 이 수치는 CFI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아직도 모형이 적합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표 1><sup>14)</sup>의 상단에 초기모형의  $\chi^2$ 값, CFI를 포함한 다른 적합도 판별지수의 값들이 제시되었다.

이상 모든 적합도 계수를 통해 초기 구조등식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해 본 결과 초기 모형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초기 모형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모형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증가시키거나 모형의 적합도를 유지하면서 모형을 보다 경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수정지표가 제시되어, 이들 지표들을 검토하여 모형 수정에 들어갔다.

## (2) 모형수정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은 확인적 연구(confirmatory study)이지만, 적합도가 더 높은 모형을 찾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의 성격을 띠게 된다. 모형탐색이 시작되면 우선 초기 분석결과에 나타난 수정지표들을 참고로 이론적 판단을 가미하여 초기모형을 수정한다. 모형수정은 보통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정<sup>15)</sup>과 간결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sup>16)</sup>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변인은 유지한 채 자유추정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수정을 행하였다.

### ① 자유추정수의 추가

분석 결과 '부모염려'(F17) → '부모존중'(v), '부양정도'(F) → '가족화목'(v), '원가

---

13)  $CFI^* = \{(S-B \chi^2_0 - df_0) - (S-B \chi^2_k - df_k)\} \div (S-B \chi^2_0 - df_0)$

( $\chi^2_0$ : null model 값,  $\chi^2_k$ : 연구모형 값, S-B  $\chi^2_k$ : 첨도를 고려한  $\chi^2$ 교정치,  $df_0$ : null model의 자유도;  $df_k$ : 연구모형의 자유도). 이것은 표본의 수와 표본의 다중정규분포 위반 상태 모두를 고려한 지표라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정확한 판단지표라고 볼 수 있다.

14) GFI(Goodness of Fit Index)와 AGFI(Adjusted GFI)는 LISREL에서 사용되는 적합도 판별계수이다. GFI는 실증자료의 전체 변량·공변량 중 제시된 구조등식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공변량의 상대적 비율이다. GFI는 표본의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치가 0.90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oelter & Harper, 1987). AGFI는 자유도를 고려하여 GFI를 수정한 값이다.

15) 기존의 이론변인을 유지하면서 자유추정수(free estimates)를 추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16) 기존의 변인을 유지하면서 자유추정수를 고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

족관계'(F) → '부모존중'(v), '부양의식'(F) → '부모존중'(v) 등의 함수를 자유화(*free estimate*) 할 경우  $\chi^2$  값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모형의 적합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함수들 중 '부양정도'(F) → (원)'가족화목'(v)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지 않고 나머지 변인들은 측정논리상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정하였다. 즉, '부모염려'라는 내재변인은 부모에 대한 존중감 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가족관계 내재변인 역시 부모에 대한 존중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부모부양의식 내재변인도 부모에 대한 존중 표현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수정모형에서는 위의 세 함수를 동시에<sup>17)</sup> 추가하였다(〈그림 2〉 참조).

## ② 자유추정수의 고정

초기검증 결과, 애초 설정되었던 '원가족관계'(F1) → '부양의식'(F2), '부양의식'(F2) → '부양정도'(F4), '원가족관계'(F1) → '부양정도'(F4)의 경로함수를 '0'으로 고정해도 모형의 적합도에는 별 영향이 없음이 드러났다. 이들 지표를 참고하고, 부모부양의식이 곧 부모부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상욱·양철호, 1998; 김상욱, 2000), 원가족관계가 곧 부모부양의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에 대한 한국 실증 자료의 미비, 원가족관계가 곧 부모부양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Whitbeck et al., 1991, 1994)을 고려하여 위의 세 가지 경로함수를 '0'으로 고정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그림 2〉는 함수의 자유화(*free estimatin*)와 함수의 고정(*fix*)을 모두 반영한 수정모형이다.

## (3) 수정모형의 검증

### ① 수정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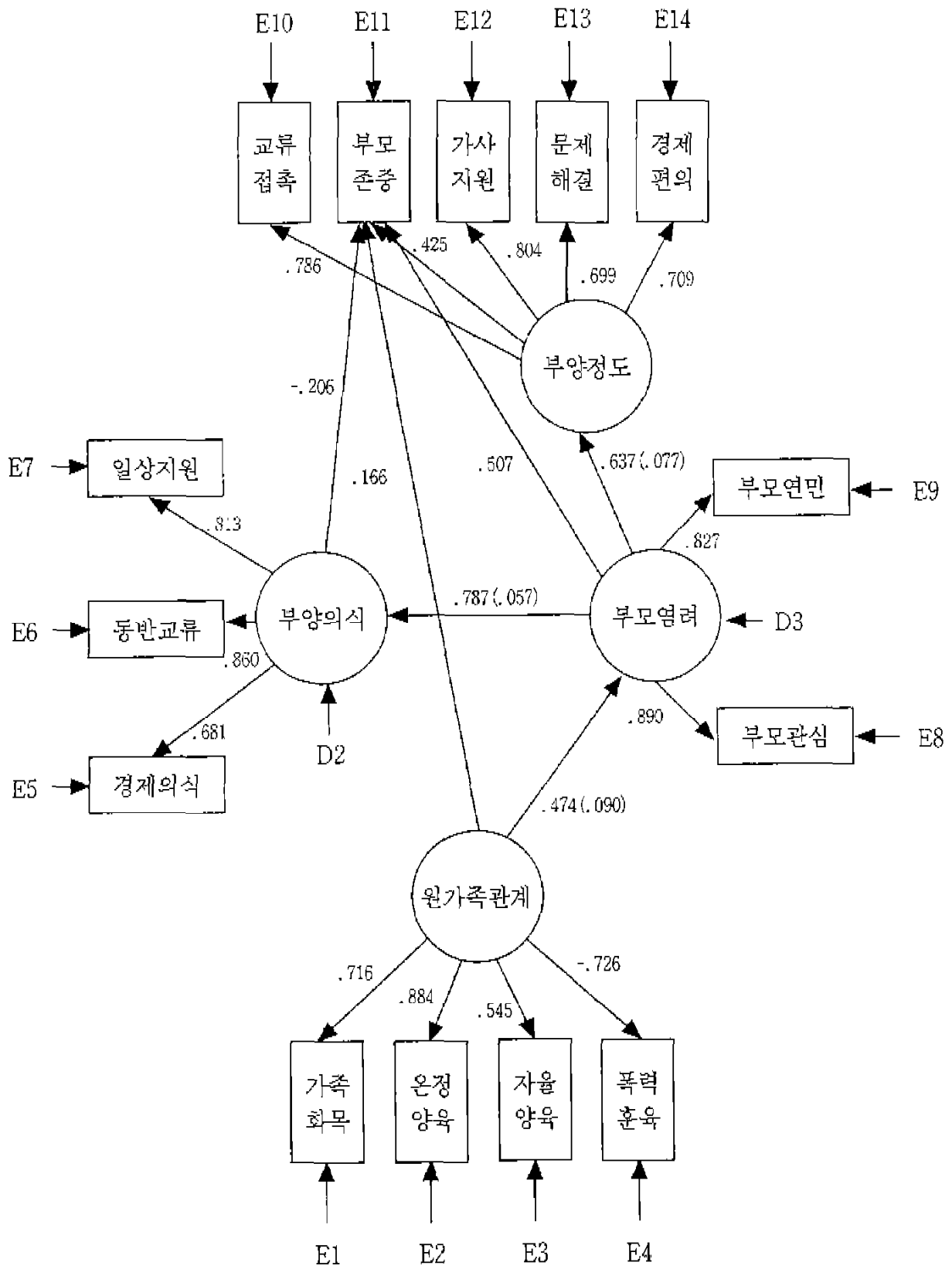
〈표 1〉의 하단에는 다양한 모형적합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전에는 없던 3개의 자

---

17) F는 내재변인(latent construct, or factor), v는 측정변인(observed variables)을 나타냄.

18) EQS에서는 LISREL과 달리 LM-Test 법을 사용하여 함수의 부적합(misfit)을 다변량방식(multivariately)으로 사정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여 한번에 하나 이상의 수정을 행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Byrne, 1994: 63).

〈그림 2〉 수정된 인과구조 모형 및 관련계수



유추정수가 추가되고, 존재하던 3개의 자유추정수가 고정('0'처리)되어 자유도(df=71)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hi^2$ 값은 초기모형의 173.479에서 수정모형의 128.991( $p < .001$ )로 감소하였다( $\Delta \chi^2 = 44.488$ ). 표본의 다중 비정규분포성을 고려한 S-B  $\chi^2$ 값도 117.0253( $p = 0.00048$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chi^2$ 값에 의거한 적합도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본 크기의 영향을 감안한 적합도 판별기준인, ( $\chi^2$ 값 ÷ 자유도(df))의 값은 1.8167로 3보다 훨씬 작아 모형의 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CFI 값은 0.967( $\Delta = .028$ ), 교정CFI(\*CFI)<sup>19</sup> 값도 0.967로 나타났다. 그밖에 LISREL 모형 적합지표인 GFI(0.935)와 자유도를 고려한 AGFI(0.904)도 모두 0.90이상을 나타냈고, 수정된 모형의 반복순환횟수도 13회로서 애초모형의 15순환보다 2 적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수정된 모형은 상당한 정도의 모형 적합도 향상과 함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CFI값 0.967이 나타내듯 표본자료 공변량의 약 97%가 수정모형에 의해 설명되었으므로 추가 모형 수정은 없었다.

## ② 함수추정치(parameter estimates)의 제시 및 통계적 유의성

〈그림 2〉와 〈표 2〉에는 수정모형의 각 내재변인과 그 측정변인들 사이의 요인부하값들(factor loadings)<sup>20</sup>이 제시되어 있다. 요인부하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원가족관계(내재변인)는 폭력훈육(측정변인)에 부정적인 영향(-0.05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하였다. 하지만, 노부모부양의식이 부모에 대한 존중표현에 부정적인 영향(-0.326)을 미치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부양의무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부모에 대한 존중감 표현의 정도는 약해진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부분으로서 추후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다. '부모존중'은 수정모형에서 모든 내재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재설정되어 있다. 잔차공변량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했듯이 측정변인, '부모존중'은 약간 문제를 지닌 측정변인으로 보여 추후 연구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 측정변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약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측정변인들(새로 추가한 요인계수 3개

19) 앞서 설명대로 CFI 값은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자유도를 고려한 판별계수이고 \*CFI 값은 자유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표본 자료의 다중정규분포 가정의 불충족 상태를 고려한 판별계수임.

20) 요인부하값은 내재변인이 측정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이다(Bollen, 1989). 즉, 〈표 2〉의 비표준화계수 값은 각 내재변인 1단위 값이 변화할 때 변화되는 각 측정변인의 값을 나타낸다.



포함)의 요인부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sup>21)</sup> 모든 측정도구들이 내재변인에 대한 측정을 잘 수행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내재변인에 대해 가장 신뢰성있는 측정 도구는 부모관심(0.791)이었으며 가장 신뢰도 낮은 도구는 경제지원(0.464)이었다.

〈표 2〉 잠재구인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계수, 오차변량 및 신뢰도

| 잠재구인:<br>(Latent Construct) |           | 요인부하(factor loadings) |       | 오차변량 | R <sup>2</sup> |
|-----------------------------|-----------|-----------------------|-------|------|----------------|
|                             | 측정변인      |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      |                |
| 원가족관계(F1):                  |           |                       |       |      |                |
|                             | 가족화목(v1)  | 1.000a(-)             | .716  | .487 | .513           |
|                             | 온정양육(v2)  | 1.429*(.121)          | .884  | .219 | .781           |
|                             | 자율양육(v3)  | .762*(.095)           | .545  | .702 | .297           |
|                             | 폭력훈육(v4)  | -.053*(.005)          | -.726 | .473 | .527           |
|                             | 존중표현(v11) | .225*(.074)           | .166  | .372 | .627           |
| 노부모부양의식(F2):                |           |                       |       |      |                |
|                             | 경제지원(v5)  | 1.000a(-)             | .681  | .536 | .464           |
|                             | 동반교류(v6)  | 1.366*(.120)          | .860  | .260 | .739           |
|                             | 일상지원(v7)  | 1.166*(.105)          | .813  | .339 | .661           |
|                             | 존중표현(v11) | -.326*(.152)          | -.206 | .372 | .627           |
| 부모에대한염려(F3):                |           |                       |       |      |                |
|                             | 부모관심(v8)  | 1.000a(-)             | .890  | .209 | .791           |
|                             | 부모연민(v9)  | .887*(.056)           | .827  | .316 | .685           |
|                             | 존중표현(v11) | .559*(.130)           | .507  | .372 | .627           |
| 노부모부양정도(F4):                |           |                       |       |      |                |
|                             | 교류접촉(v10) | 1.000a(-)             | .786  | .383 | .617           |
|                             | 존중표현(v11) | .435*(.071)           | .425  | .372 | .627           |
|                             | 가사지원(v12) | 1.114*(.087)          | .804  | .354 | .646           |
|                             | 문제해결(v13) | .719*(.065)           | .699  | .511 | .489           |
|                             | 경제편의(v14) | .943*(.084)           | .709  | .498 | .502           |

a 고정값, \*  $p < .05$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

21) 유의수준  $\alpha = 0.05$ 에서 계수값을 표준오차로 나눈 절대값이 1.96보다 클 경우( $\pm 1.96$ ), 'z=0' 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된다.

〈표 3〉 내재변인간 경로계수, 오차변량 및 결정계수

| 함수경로          |               | 잠재구인간 경로계수  |      | 오차<br>변량 | R <sup>2</sup> |
|---------------|---------------|-------------|------|----------|----------------|
|               |               | 비표준화(표준오차)  | 표준화  |          |                |
| 원가족관계(F1)     |               |             |      |          |                |
| →             | 부모에 대한 염려(F3) | .583*(.090) | .474 | .776     | .224           |
| 부모에 대한 염려(F3) |               |             |      |          |                |
| →             | 노부모 부양의식(F2)  | .547*(.057) | .787 | .381     | .619           |
| →             | 노부모 부양정도(F4)  | .687*(.077) | .637 | .594     | .405           |

\*  $p < .05$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

〈표 3〉에는 구조등식모형의 함수들, 즉 내재변인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 함수에 대한 추정치들이 제시되었다. 앞서 〈그림 2〉의 각 경로에 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들임을 밝혀둔다.

〈표 3〉에 나타난 경로계수 역시 한 내재변인이 다른 내재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이다. 〈그림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내재변인들간의 경로계수 3개 모두가 유의수준  $\alpha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여기서 R<sup>2</sup> 값은 해당 내재변인이 다른 내재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노부모 부양정도는 원가족관계와 부모에 대한 염려에 의해 41% 정도 설명되었으며, 노부모 부양의식은 원가족관계와 부모에 대한 염려에 의해 62% 정도 설명되었다. 부모에 대한 염려는 원가족관계에 의해 22.4% 설명되었다. 내재변인간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원가족관계 양상은 부모에 대한 염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gamma_{31} = 0.474$ ), 부모에 대한 염려는 노부모 부양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beta_{32} = 0.787$ ), 부모부양정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_{34} = 0.637$ ).

### ③ 내재변인들간의 직접, 간접, 총효과

〈표 4〉에 종속(내생) 내재변인에 대해 독립(외생) 내재변인 또는 다른 종속 내재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 간접 및 총효과로 나눠 제시하였다. 〈표 4〉에서 결정변인은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 결과요인은 영향을 받는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직접효과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게 매개

〈표 4〉 결과요인들에 대한 원인변인들의 영향력

| 결과요인<br>(Outcome) | 결정변인<br>(Determinants) | 직접효과<br>(Direct) | 간접효과<br>(Indirect) | 총효과<br>(Total) |
|-------------------|------------------------|------------------|--------------------|----------------|
| 노부모부양의식<br>(F2)   | 원가족관계 (F1)             | 0.000            | 0.319              | 0.319* (.373)  |
|                   | 부모에대한염려 (F3)           | 0.547            | 0.000              | 0.547* (.787)  |
| 부모에 대한<br>염려 (F3) | 원가족관계 (F1)             | 0.583            | 0.000              | 0.583* (.474)  |
| 노부모부양정도<br>(F4)   | 원가족관계 (F1)             | 0.000            | 0.401              | 0.401* (.302)  |
|                   | 부모에대한염려 (F3)           | 0.687            | 0.000              | 0.687* (.637)  |

\*  $p < 0.05$ ; ( )안의 숫자는 표준화된 수치임.

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는 영향이며, 간접효과는 한 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다른 변인에 주는 영향이다. 총효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합이다.

〈표 4〉에서, 총효과는 직접효과, 또는 간접효과 중 어느 한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초기모형에서 가정되었던 원가족관계(F1)가 노부모부양정도(F4)에 미치는 직접효과, 원가족관계(F1)가 노부모부양의식(F2)에 미치는 직접효과, 노부모부양의식(F2)이 노부모부양정도(F4)에 미치는 직접효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생략된 결과이다. 세 개의 종속 내재변인에 대한 총효과 모두는 유의수준  $\alpha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총효과는 직접 혹은 간접 효과 중 한 성분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효과를 구성하고 있는 직접 또는 간접 효과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원가족관계(F1)는 노부모부양의식에 직접영향을 주지 못하고 일단 부모에 대한 염려(F3)에 영향을 준 다음( $\gamma_{31} = 0.583$ ), 이 부모염려(F3)가 다시 노부모부양의식(F2)에 미치는 영향( $\beta_{32} = 0.547$ )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노부모부양의식(F2)에 영향을 주었다( $\gamma_{31} \times \beta_{32} = 0.583 \times 0.547 = 0.319$ ). 원가족관계(F1)는 노부모부양정도(F4)에도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염려(F3)를 통해서( $\gamma_{31} = 0.583$ ), 이 부모염려(F3)가 다시 노부모부양정도(F4)에 영향을 줌으로써( $\beta_{43} = 0.687$ ), 간접적으로 노부모부양정도(F4)에 영향을 주었다( $\gamma_{31} \times \beta_{43} = 0.583 \times 0.687 = 0.401$ ). 노부모부양의식(F2)은 노부모부양정도(F4)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노

---

부모부양정도(F4)는 원가족관계(F1)에 의해서보다는 부모에 대한 염려(F3)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Whitbeck(1994: S9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노부모부양의식(F2)도 원가족관계(F1)에 의해서보다는 부모염려(F3)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원가족관계 유형에 따른 부모부양 종류의 차이

원가족관계 유형이 부모부양정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염려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부모염려를 통제한 상태에서 원가족관계 측정변인들이 부모부양의 종류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았다. 일반선형모형(GLM)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인인 부모염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원가족 내의 가족화목은 부모에 대한 존중감 표현( $F=16.578, p=.000$ )과 부모문제해결 지원( $F=11.079, p=.001$ )에, 온정양육 역시 부모에 대한 존중감 표현( $F=12.634, p=.000$ )과 부모문제해결 지원( $F=7.426, p=.007$ )에, 원가족 내의 자율양육은 부모에 대한 존중감 표현( $F=4.668, p=.032$ )에만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나머지 종속변인들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원가족 내 폭력훈육의 정도는 모든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결과는 어린 시절 화목한 가족, 온정어린 양육, 자율적인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성인자녀들은 자신들의 노부모에 대해 존중감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화목한 가정, 온정어린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성인자녀는 자신의 부모에게 문제해결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중감의 표현과 문제해결 지원 모두가 부모와 정서가 깊은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청소년 시절에 부모와 긍정적 정서를 원만하게 교환해 본 경험이 있는 성인자녀만이 후에 변함 없이 사랑의 감정을 노부모에게 표출하고, 노부모가 표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암시한다. 반면에, 폭력훈육의 경험은 성인자녀가 되면서 부모염려 정도에 영향을 줄 뿐 부모염려 정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드러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여타 원가족관계 변인들의 부모부양행위에 대한 영향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염려'에 주는 일차적인 영향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다.

## 6. 결론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시절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율적인 인간으로 언어적 폭력 경험 없이 자라난 성인자녀는 현재 자신들의 노부모를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염려는 노부모에 대한 적극적 부양행위로 이어졌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 좋은 가족환경에서 사랑을 받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했어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현재는 부모를 염려하지 않게 된 성인자녀들은 부모부양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부모부양행위는 현재 성인자녀가 갖고 있는 부모염려 정도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지만, 그 염려정도는 원가족 관계 양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과거 성인자녀가 청소년 시절 경험한 긍정적 원가족관계가 현재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염려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그것이 부모에 대한 적극적 부양행위로 이어졌다. 노부모부양의식(즉,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 역시 원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좋은 경험이 현재 노부모에 대한 염려로 지속될 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당위적 생각자체가 부모부양행위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앞서 김상욱·양철호(1998)와 김상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전체적으로 부모염려가 노부모부양의 신뢰할 만한 예견 변인이라는 사실은 Whitbeck et al. (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어린 시절 화목한 가족, 온정어린 양육, 자율적인 양육을 경험한 성인자녀는 후에 일어난 경험들에 관계없이 부모에 대한 존중감의 표현과 부모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반면, 폭력적 훈육을 경험한 성인자녀의 경우는 후기 경험 내용에 따라 부모부양행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유년기 사랑감정은 성장 후까지 지속되나, 훈육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 부모권위의 영향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 상쇄된다는 Rossi & Rossi(1990, 3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현재의 성인들이 노부모가 되었을 때 성장한 자녀에 의해 적절한 부양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들의 가족관계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가? 개입 전략으로서, 첫째,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현재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화목한 가정, 애정이 넘치는 가정, 자녀의 자율적 의사와 행동이 존중되는 가정, 그

---

리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여 차분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만들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율적 양육의 반대 개념은 과잉보호였다. 부모들은 먼저, 자신들이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애정과 이성으로 양육하되, 자녀들의 개성과 자율을 빼앗아 가면서 자녀를 부모의 틀에 맞추다든지 자녀를 과잉보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 스스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감당하되, 자녀의 올바른 훈육을 위해서는 자녀와 엄연히 구별된 부모의 분별 있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받아야 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양육과정에서 사용한 권위의 영향은 초기에 자녀-부모간 친밀감을 약간 억누르는 효과가 있지만, 자녀가 성장한 후엔 그 영향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Rossi & Rossi, 1990: 314), 부모는 사랑을 주되 부모의 권위를 유지해, 일관성 있고 자율적인 양육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족관계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좋았던 청소년기 가족관계가 성인자녀가 되어 악화되는 정확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나, 추정하건대, 우리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과정은 물론, 결혼 후의 가족 운영 및 가족관계에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부모·성인자녀간 갈등이 발생한다.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된 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도 자녀가정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차후 부양행위를 촉진하는 가족관계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Minuchin, 1974; Minuchin & Fishman, 1981).

셋째,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염려정도가 살아날 수 있는 관계형성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인자녀가 갖고 있는 노부모에 대한 염려가 노부모부양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이 개념은 과거 가족관계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부양의식 및 부양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이 부모염려 정도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고 싶고, 부모를 생각하고, 안쓰러워하는 감정상태이다. 이것은 정서적 친밀감(*affective closeness*)이라고 볼 수 있는데, Rossi & Rossi(1990:314)는, a) 청소년기에 자애롭고, 잘 놀아주는 부모와 유대가 강한 가족에서 부모들과 친근하게 성장한 성인자녀(특히, 딸)는 현재 노부, 노모에게 강한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 b) 성인 딸은 어머니와의 청소년기 갈등에 관계없이 성인이 되어 노모와 친밀감을 형

---

성하는 반면, 아버지와 청소년기에 갈등 상황에 있었던 경우는 후에 노부와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며, c) 성인 아들은 청소년기 부, 모에 대한 친밀감 경험 여부가 후에 노부, 노모에 대해 갖게 되는 정서적 친밀감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d) 아버지와 친밀한 청소년기를 보낸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부자간 가치의 공유(*value consensus*)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 결과는 비록 외국의 사례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부 또는 노모가 후에 자신의 성인 딸, 성인 아들과 애뜻한 관계를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딸, 아들과의 관계형성에 구별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을 시사해 준다. 한국에서 아직도 노부모부양행위를 아들 가족에 기대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인자녀가 아버지와 맺게 되는 관계 양상은 원가족 내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와 관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Rossi & Rossi, 1990:320) 말해준다. 원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성인 자녀 아버지들에 대한 가족관계 교육 내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염려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효의 중시와 같은 사회교육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부모부양의 당위성(부양의식)이 실제 부양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부모부양관점에서만 본다면, 효를 강조한 사회교육은 비효과적이라고 잠정 단정할 수 있다. 실제 부양행위는 외적 당위의 제시가 아닌 애정과 염려에 바탕을 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하는 전략하에서 성인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거여부가 부모염려와 부양행위 종류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동거여부는 교류접촉정도( $p=.005$ ), 가사지원정도( $p=.000$ ), 경제편의 제공( $p=.000$ ), 부모연민정도( $p=.015$ ) 등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켰다. 즉, 존중감표현정도( $p=.193$ ), 문제해결지원정도( $p=.073$ ), 동반욕구( $p=.110$ )의 정도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류접촉, 가사지원, 경제편의 제공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변인들이어서 함께 산다는 것 자체는 부모부양의 정도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동거중인 성인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높은 부모연민 정도를 나타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부모를 염려하는 마음이 부모와 함께 살도록 하게 하고,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교류접촉, 가사지원, 경제편의제공 등을 별거 성인

---

자녀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부양의 스트레스로 인해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현재 관계의 악화는 부양의 감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Whitbeck 등, 1991: S335; 1994: S93)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원가족관계가 부양정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중간에 부모에 대한 염려를 거쳐야만(즉, 부모 염려가 유지되어야만) 부양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원만했던 원가족관계를 단절시켜 성인자녀가 노부모에 대해 갖고 있던 염려의 정도를 저하시키거나 상실되도록 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탐색은 성인자녀의 과거 청소년기와 현재 성인기 사이에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에 발생한 기억할 만한 인생사건을 추적해 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원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회상 자료는 현재 관계 양상에 의해 영향받을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사건에 대한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거 경험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Elder, Caspi, & Downey, 1986) 상기할 때, 회상자료의 유효성은 과소 평가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가족관계에 대한 회상자료와 현재의 부양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성인자녀의 일방적 의견만을 수집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부모, 성인자녀 모두로부터의 자료수집이 바람직하겠다. 하지만, 이 경우 문항을 대폭 축소하여 조사를 간략화 하지 않는다면, 측정 피로 현상으로 인해 노인으로부터의 자료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집된 자료자체의 타당성, 신뢰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즉, 노인대상의 연구에서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노인에 대한 직접조사와 조사의 정밀성(많은 문항수와 문항의 치밀성) 사이에 적절한 절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부양자의 성별이 구별되지 않았다. 즉, 아들과 딸의 구조등식모형이 동일한지 혹은 상이한지가 별도로 검증되지 않았다. 성인자녀 응답자의 72%가 남성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확인된 구조등식모형의 내용은 남성 성인자녀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성인자녀의 성별 구분 없이 제시되고 검증된 구조등식모형이 남녀 성인자녀 각각의 표본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의성을 띤 목적 표본 수집 방법을 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확률표본 추출방식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노부모가 생존해 있는 성인자녀 모집단을 일괄적으로 구분해 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모집단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확률표본 추출된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확률표본의 의미가 사실상 상실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가 취한 방법이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한점 가운데서 본 연구는 세대간 관계에 대한 사회학습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유년시절 학습한 가족상호작용 패턴이 후기 인생의 유사한 구조 상황에서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화목, 온정, 자율, 절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후에 세대간 지원 및 교환의 패턴을 잘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론적 함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상욱. 1998.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시부 및 시모에 대한 공변량구조모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5호, pp. 51~83.
- \_\_\_\_\_. 1999.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 II: 인과모형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38호, pp. 33~67.
- \_\_\_\_\_. 2000. “노인부양의 불일치: 태도-행위의 세대 내 불일치 및 세대간 불일치”, 《한국사회복지학》 42호, pp. 41~82.
- 김준호·김순형.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효정·김명자. 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 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 3, pp. 36~46.
- 서병숙·이신숙. 1990. “농촌기혼여성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 10. 1, pp. 191~211.
- 성규탁. 1993.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3. 2, pp. 251~273.
- 심은지. 1998. “노인부양의식의 세대간 비교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권선진·권중돈·이원숙. 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 임종권 외. 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장인협·최성재. 1994. 《노인복지》,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경희·오영희·변용찬·조애저·변재관·문현상.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정혜. 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 9, pp. 85~101.
- 최혜경·문숙재·정순희·조진명·김은경. 1999. "부양서비스가 노인과 부양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 1, pp. 15~30.
- 한경혜. 1992. "농촌가족관계의 변화와 배경," 《농촌생활과학》 제 13권.
- 한남제. 1989. 《현대가족연구》, 서울:일지사.
- 홍순혜. 1999.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족원 유형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9호, pp. 322~349.
- 황미영. 1999.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 2, pp. 27~46.
- Antonucci, T. C. 1996.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 Edd. by R. H. Binstock & L. Georg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arnes, G. M., & Farrell, M.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November, pp.763~776.
- Bentler, P. M. 1990a.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pp.238~246.
- \_\_\_\_\_. 1990b. Fit Indexes, Lagrange Multipliers, Constraint Changes, and Incomplete Data in Structural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pp.163~172.
- \_\_\_\_\_. 1992. On the Fit of Models to Covariances and Method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12, pp.400~404.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pp.588~606.
- Byrne, B. M. 199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EQS and EQS/Window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s.
- Cicirelli, V. G.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 
-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pp.815-824.
- Cox, H. G. 1993. *Later life.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Eggebeen, D. J. 1992. From Generation unto Generation: Parent-child Support in Aging American Families, *Generations*, 16, 3, pp.45-49.
- Elder, G. H., Jr., Caspe, A, & Downey, G. 1986. Problem Behavior and Family Relationships: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Themes, In A. B. Sorensen, F. Weinert, & L. R. Sherrod. Eds, *Human Development and the Life Cours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agestad, G. O. 1987. Able Elderly in the Family Context: Change, Chance, and Challenges, *The Gerontologist*, 27, pp.417-422.
- Hendricks, J. & Hendricks, C. D. 1981. *Aging in Mass Society: Myths and Realities*, Cambridge, MA: Winthrop.
- Joreskog, K. G. & Sorbom, D. 1989. *LISREL 7*,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ane, R. A. & Kane, R. L. 1987. *Long-term Care: Principles, Programs, and Policies*, NY: Springer.
- Kinney, J. M. 1996. Home Care and Caregiving, I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1, pp.667-668, Edd. by J. E. Birre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ang, A. M., & Brody, E. M. 1983.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s and Help to Their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pp.193-202.
- Minuchin, S. & Fishman, H. C. 1981. *Family Therapy Techniqu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Parker, G.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pp.1-10.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pp.432-444.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atorra, A., & Bentler, P. M. 1988. Methodology Review: Analysis of Multitrait-multimethod Matrice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0, pp.1-22.
- Simos, B. G. 1973. Adult Children and Their Aging Parents. *Social Work*, May, pp.78-85.

- 
- Whitbeck, L., Hoyt, D. R., & Huck, S. M. 1994. Early Family Relationship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Provided to Parents by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9, 2, S85~S94.
- Whitbeck, L., Simons, R. L., & Conger, R. D. 1991. The Effects of Early Family Relationships on Contemporary Relationships and Assistance Pattern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6, 6, S330~337.

## Dynamics of Family of Origin That Affect the Level of Support for the Elderly Parent Provided by the Family of Adult Children

### Analysis and Intervention

Um, Myung-Yong

(Associate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for a sample of 306 adult children who have an elderly parent or both parents ali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hich specified the effects of early family relationships on contemporary relationships and assistance pattern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EQS for Windows 5.7, utilizing maximum likelihood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early family relationships affected filial concern first, which in turn affected the level of assistance provided by adult children for elderly parents. No direct effect has been found between early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level of assistance by adult children for elderly parents. Filial concern was played as an intervening variable. Early family relationships gave no direct effects to adult children's intention to assist their parents. Here again, filial concern was played as an intervening factor. Adult

---

children's intention to assist their parents had not been led directly to provision of actual support to parents by their adult children. Thus, it was identified that intention to support is one thing, and the actual support is anoth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filial concern, overall, early family relationship patterns gave no differential effects to the different aspects of support provided to parents by their adult children.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paper provided both discussions and suggestions for some strategies of intervention in the present family relationships in order for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of supports to happen in the future.